

정책과 데이터 중심의 구정홍보지

# 정책스토리

2025년 3분기 정책매거진 VOL. 21



sb 성북



# CONTENTS

## 01

### 숫자로 보는 성북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성북구 상권분석 ..... 04

## 02

### 정책 공감

- 성북구의 대표적인  
글로벌 공동체 축제  
제12회 라틴아메리카  
축제 ..... 09

## 03

### 데이터 공감

-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라틴아메리카 축제  
유동인구 분석 ..... 12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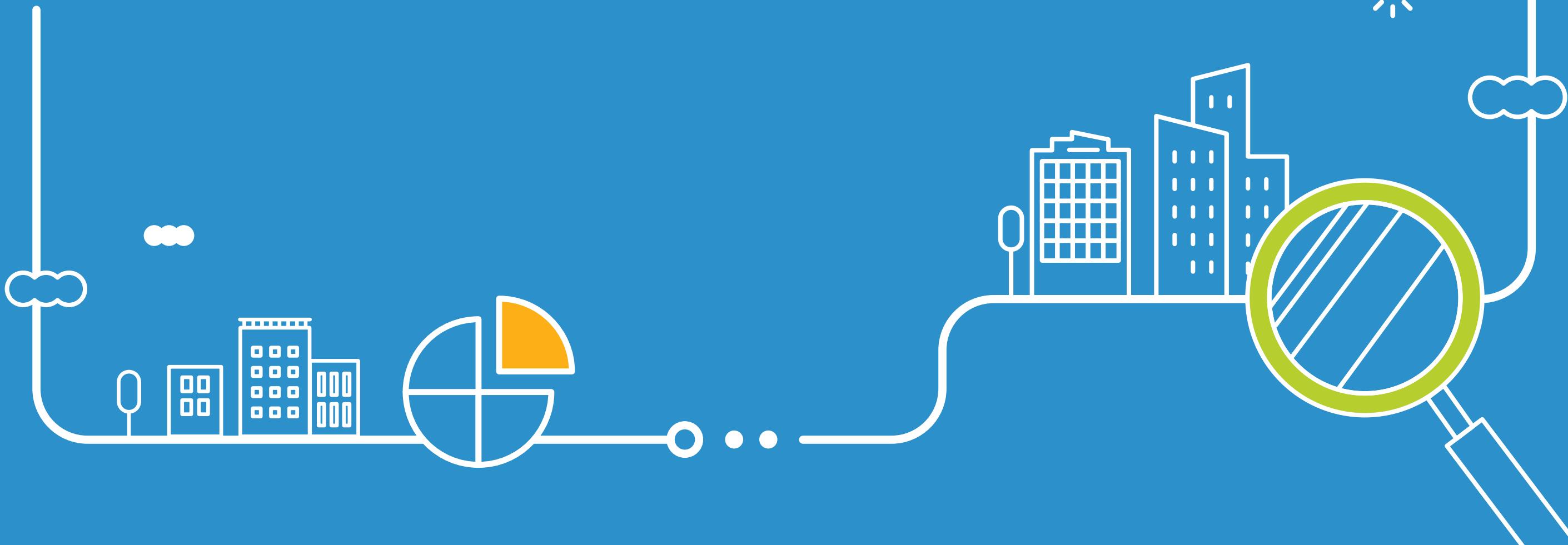
### 성북 생활정보

-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제4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제3회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 16



# 01

## 숫자로 보는 성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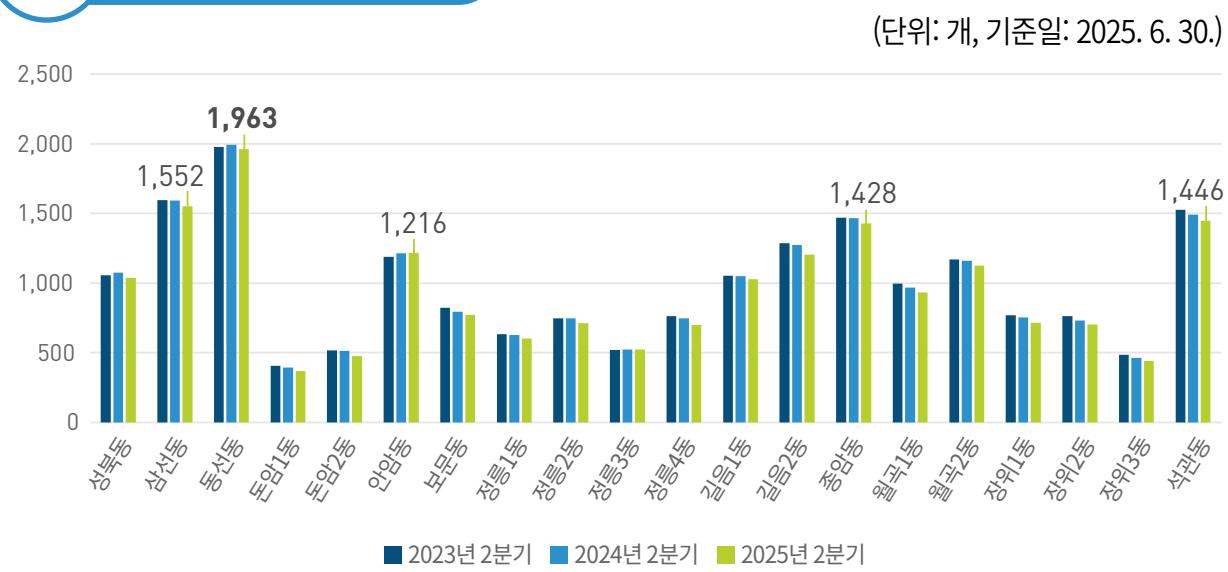
# 숫자로 보는 성북

2025년 3분기에 다루게 될 '숫자로 보는 성북'은 바로 [성북구 상권분석](#)입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golmok.seoul.go.kr](http://golmok.seoul.go.kr))를 활용하여 동별 점포 수와 신생기업 생존율을 살펴보고, 매출액, 유동인구 등 상권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동과 상권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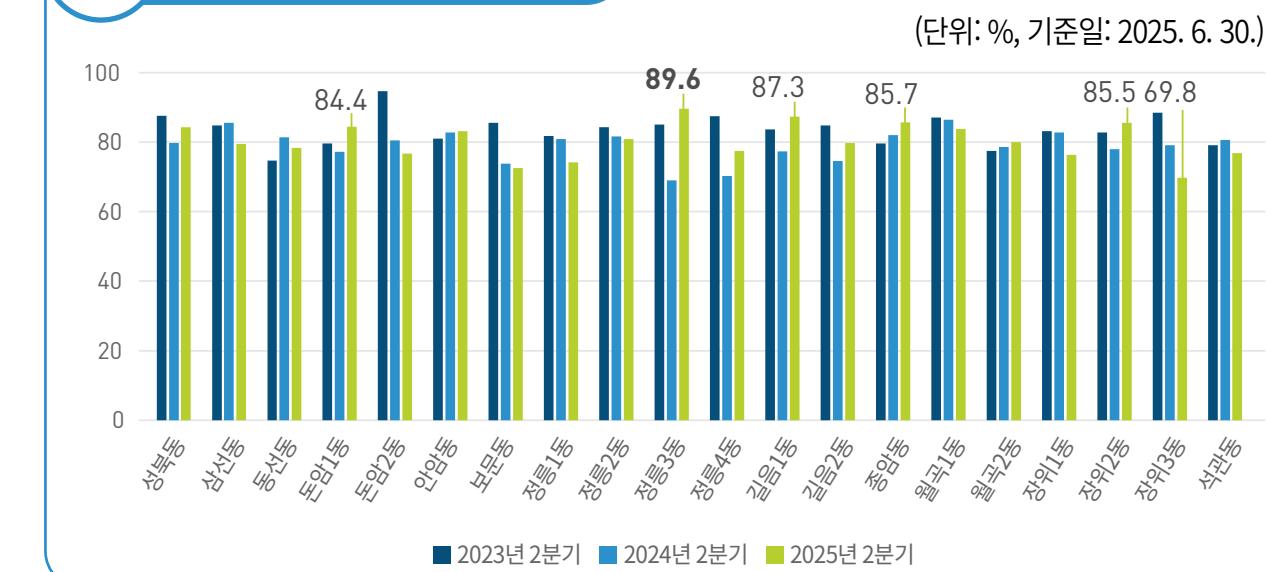
다음으로,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동별로 살펴보면, 성북구 내에서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정릉3동이 89.6%로 가장 높았고, 길음1동이 87.3%, 종암동이 85.7%, 장위2동이 85.5%, 돈암1동이 8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위3동은 69.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성북구 동별 점포 수



먼저, 성북구의 동별 점포 수를 살펴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성북구 내에서 점포 수가 가장 많은 동은 동선동으로 총 1,963개 점포가 위치하고 있으며, 삼선동, 석관동, 종암동, 안암동이 각각 1,552개, 1,446개, 1,428개, 1,216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성북구 동별 점포 생존율



점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동은 정릉1동, 안암동, 정릉2동으로 각각 0.5%, 0.5%, 0.3% 상승하였으며, 이 3개 동을 제외한 17개 동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점포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 숫자로 보는 성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가장 폭으로 상승한 동은 안암동으로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438.2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5% 상승하였습니다. 14% 상승한 보문동은 매출액이 155.6억원이었고, 세 번째로 상승폭이 큰 성북동은 매출액이 309.6억원으로 12.2% 상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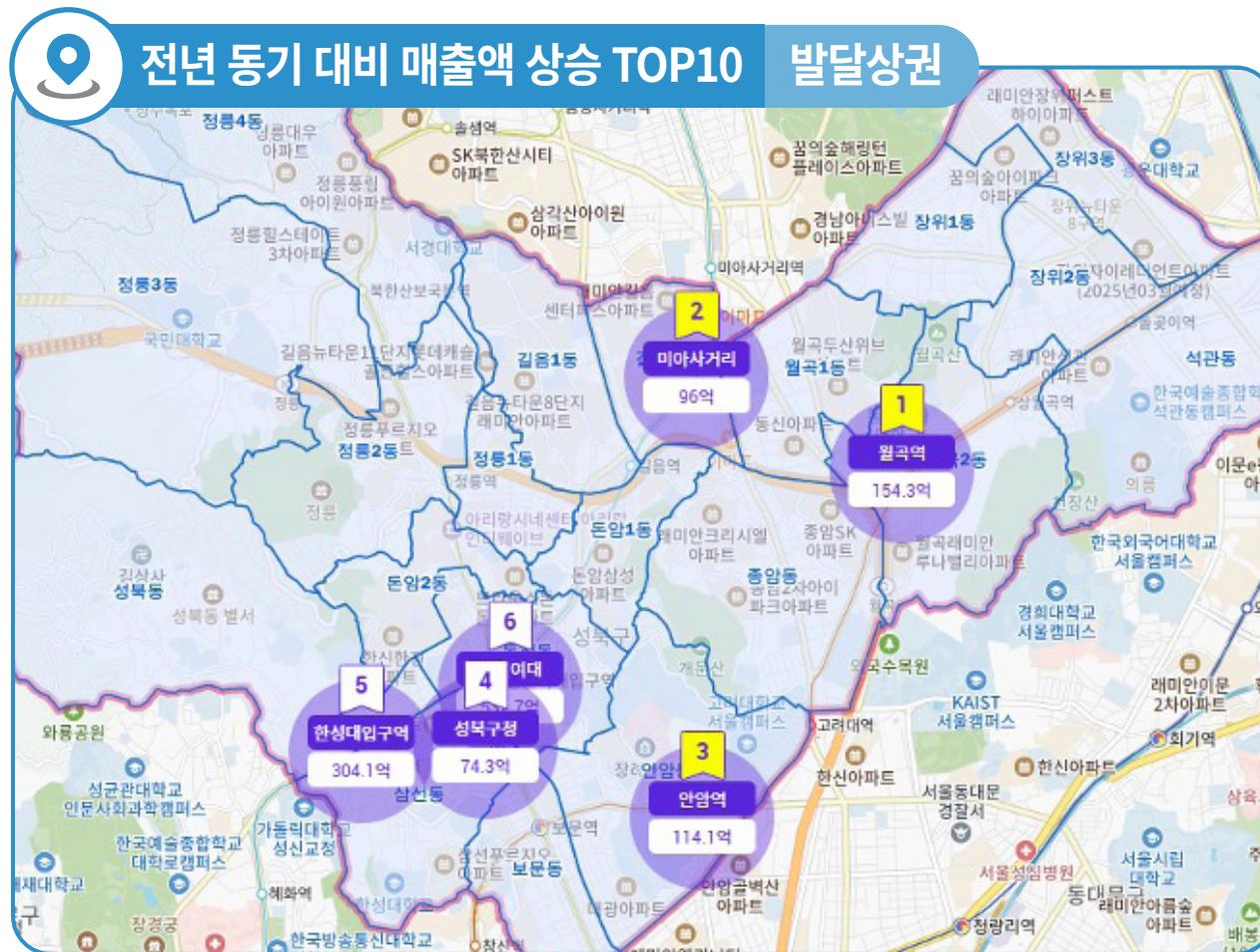
유동인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장위2동, 장위3동, 안암동의 증가폭이 컼는데, 장위2동과 장위3동은 2025년 상반기 준공된 아파트단지(장위 자이레디언트)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암동의 경우, 유동인구 수의 상승이 매출액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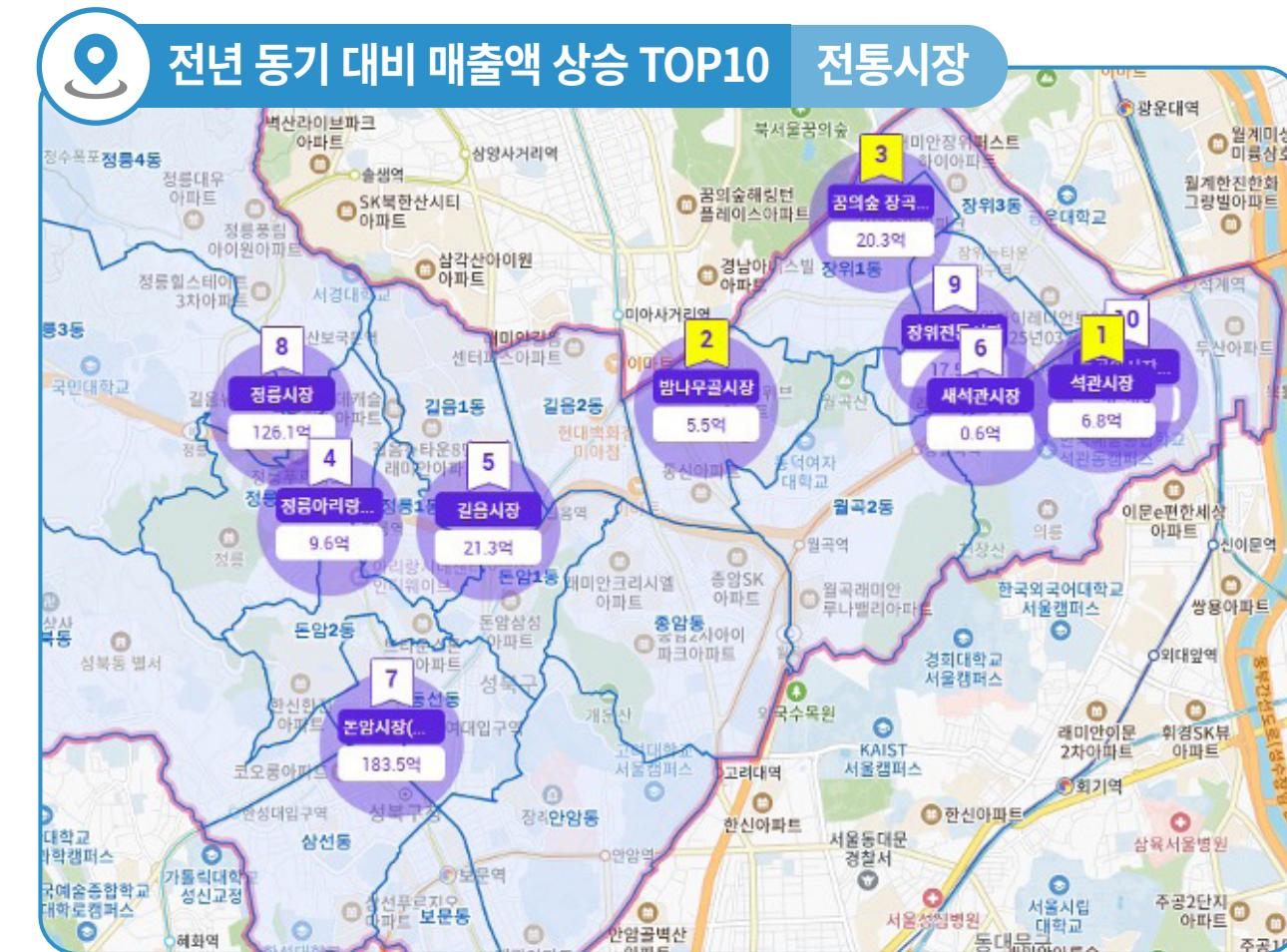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

# 숫자로 보는 성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발달상권은 월곡역 상권으로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154.3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하였습니다. 12% 상승한 미아사거리 상권은 매출액이 96억원이었고, 세 번째로 상승폭이 큰 안암역 상권은 11.3%로 매출액이 114.1억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전통시장 상권은 석관시장으로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6.8억원, 전년 동기 대비 55.3% 상승하였습니다. 54.7% 상승한 밤나무골시장은 매출액이 5.5억원이었고, 세 번째로 상승폭이 큰 꿈의숲 장곡 골목형상점가는 22.6%로 매출액이 20.3억원이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

# 숫자로 보는 성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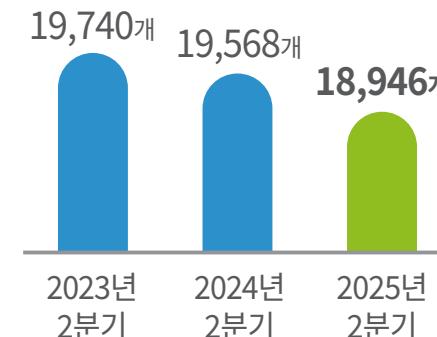
성북구의 전체 점포 수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2분기 기준 18,946개였고, 성북구의 신생기업 생존율(1년)은 24년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여 80.4%였습니다. 성북구의 평균 영업기간은 3.4년으로 24년, 23년과 큰 차이 없었으며, 성북구의 개업률은 매년 하락하여 2.2%였고, 폐업률 역시 매년 소폭 하락하여 2.7%였습니다.

추석을 앞둔 2025년 9월 16일, 성북구는 성북사랑상품권을 210억원 발행하면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총 91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기본 7% 할인에 더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3% 페이백을 추가 제공하여 총 1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특별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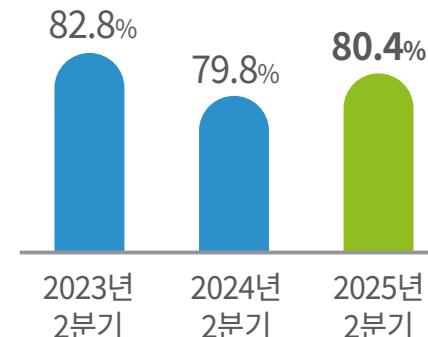


## 성북구 상권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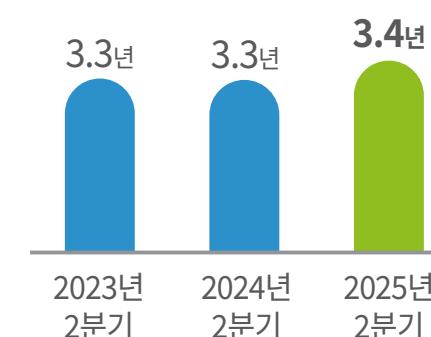
### [성북구 전체 점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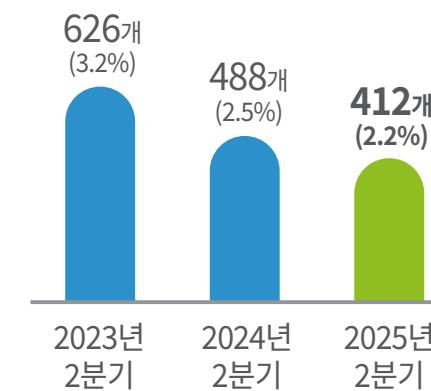
### [성북구 신생기업 생존율(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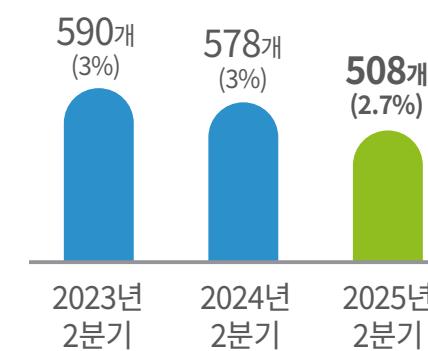
### [성북구 평균 영업기간(최근 10년)]



### [성북구 개업수]



### [성북구 폐업수]



출처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

# 02

## 정책 공감



## 정책 공감

2025년 3분기에 다루게 될 ‘정책 공감’은 바로 **성북구의 글로벌 공동체 축제인 라틴아메리카 축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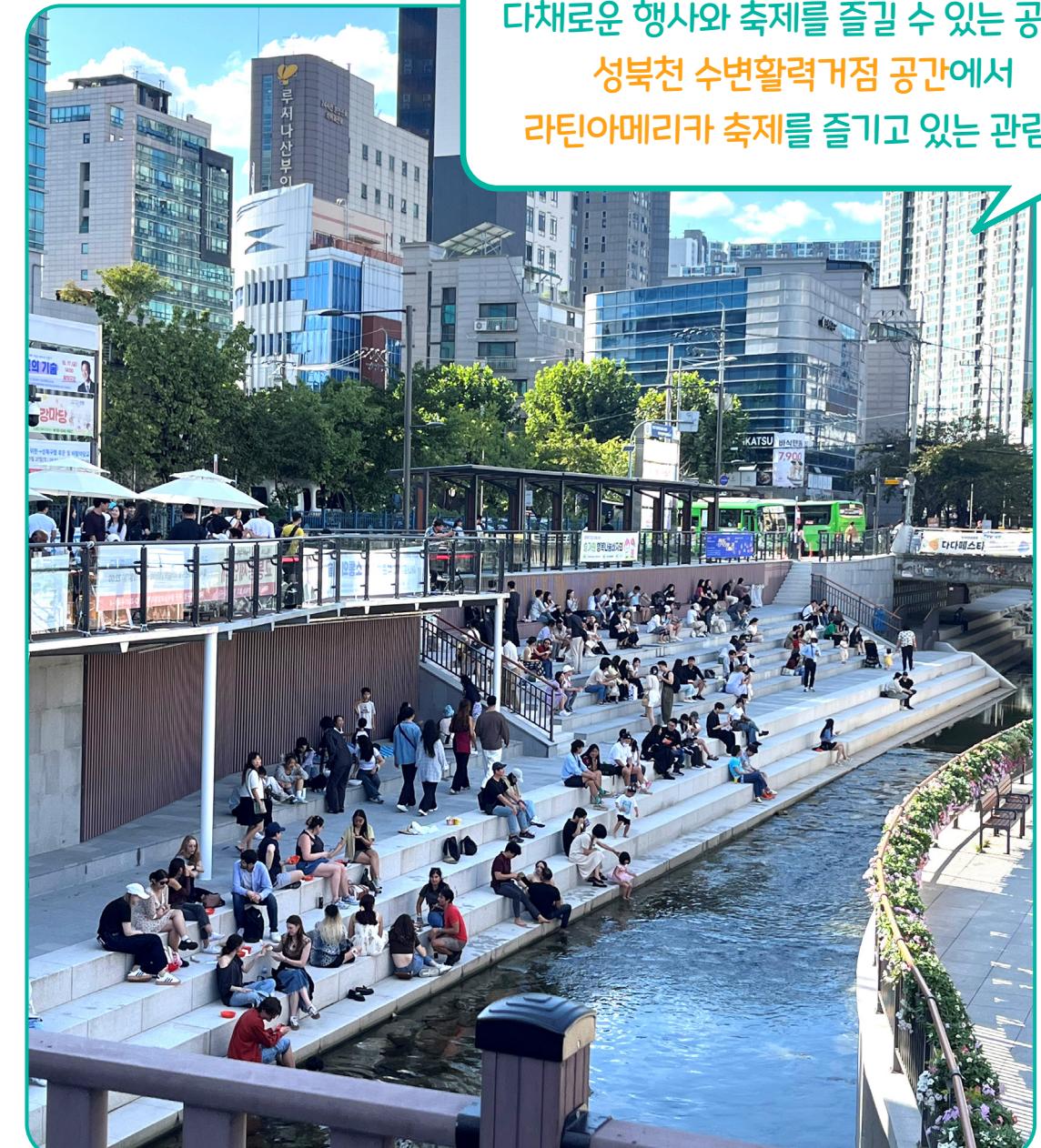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중남미 문화를 체험 수 있는 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약 40개의 외국 대사관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 중 하나인 라틴아메리카 축제는 2011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2025년 9월 21일 제12회를 맞이하고 성황리에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최장소를 삼선교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 광장에서 성북구청 바람마당으로 변경하여 관광객들이 새롭게 조성된 성북천 친수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개최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전년 대비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약 1만5천 여명이 축제를 방문하였고 설문조사 응답자 중 축제 재방문자의 79%가 변경된 행사장소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등 중남미 13개국 대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나라들은 세비체, 엠파냐다, 따고, 뿌뿌사 등 중남미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전통음식과 전통모자, 악기, 액세서리, 특산품 등 기념품은 물론, 라틴악기 및 소품 체험, 전통의상 체험, 볼리비아 전통 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공간에서  
라틴아메리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관광객

사진제공 : 성북구청

## 정책 공감

또한, 멕시코의 민속 춤,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전통무술, 페루의 전통악기 연주, 도미니카공화국의 전통댄스, 에콰도르의 대중가요, 콜롬비아의 전통춤 등 라틴음악의 정열적인 리듬과 중남미 국가의 특색을 살린 공연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축제는 다회용기 사용과 개인 텀블러 지참 시 할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볼거리·먹거리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축제 관람객 115명을 대상으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외국인이 76명(66%), 내국인이 39명(37%)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제에서 가장 인상깊은 점으로 다양한 음식(67%)을 꼽았습니다. 라틴 문화의 분위기와 테마가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6%으로 99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축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행사장 공간의 협소(29%), 대기줄 및 대기시간의 불편(21%)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무더운 날씨를 피해 9월 중순 이후로 축제 날짜를 조정하고, 부스 앞 대기공간에 차양막 및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작년 대비 무더위로 인한 민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서 행사공간의 협소함과 대기시간의 불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축제 추진 시 부스 및 무대 배치를 조정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웨이팅 어플 도입 등을 통해 대기시간 불편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남미의 문화에 흡뻑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진제공: 성북구청

# 03

## 데이터 공감



# 03

## 데이터 공감



## 데이터 공감

2025년 3분기에 다루게 될 ‘데이터 공감’은  
‘정책 공감’에서 다루었던 성북구의 글로벌 축제 ‘라틴아메리카 축제의 유동인구 분석’입니다.

성북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축제나 행사를 진행한 후 실제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의 수가 어느 정도인 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산합니다. 라틴아메리카 축제의 경우, 축제로 인한 관람객 수가 1만 5천 여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다회용기 분배량과 무대 앞 공간 기준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번 ‘데이터 공감’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축제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에서 제공하는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입니다.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서울의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로 집계구별, 행정동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 당일이었던 2025년 9월 21일(일) 12시부터 19시까지의 생활인구와 그 전주인 2025년 9월 14일(일) 12시부터 19시까지의 생활인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동인구 증가율

####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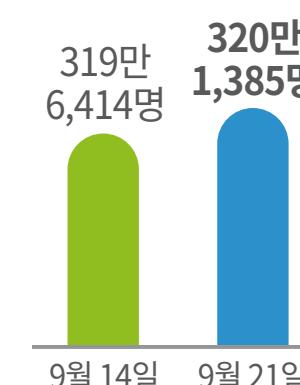
- ✓ 데이터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 데이터 공간기준 성북구 집계구(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지역경계 활용)
- ✓ 데이터 속성기준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총 생활인구 수(명)

\* 단기체류 외국인 데이터 오류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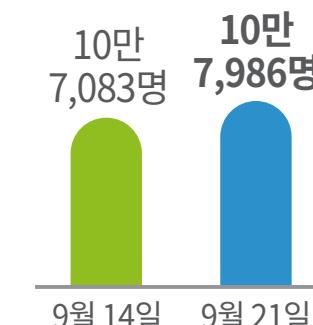
#### [성북구 총인구]



#### [성북구 내국인]



#### [장기 체류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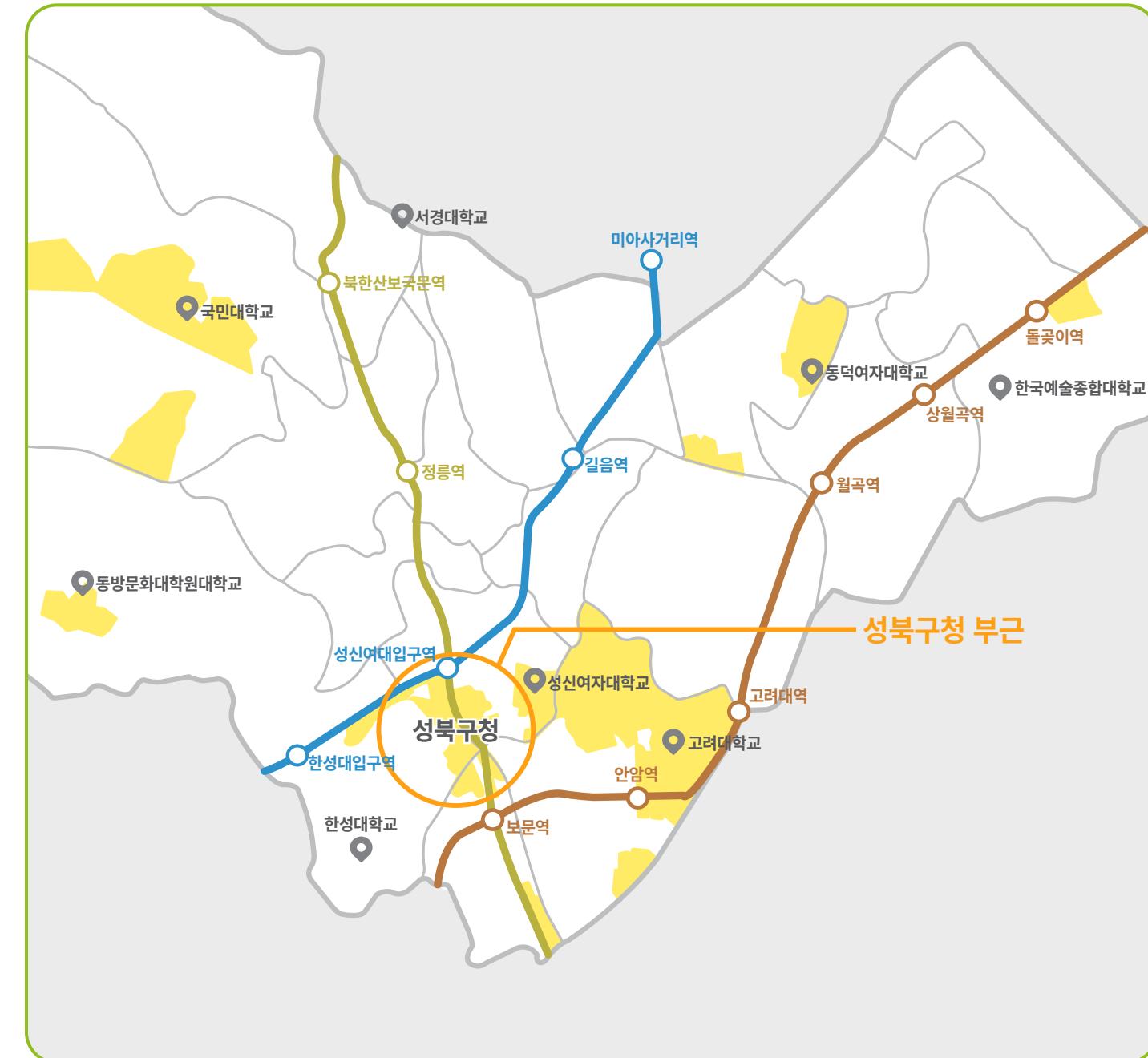
## 데이터 공감

라틴아메리카 축제 당일인 9월 21일(일요일)과 그 전 주인 9월 14일(일요일)의 생활인구를 비교했을 때 내국인 및 외국인(장기체류)이 급증한 집계구<sup>1)</sup> 22군데를 지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노란색 구역)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역은 행사가 진행되었던 성북구청 부근, 성신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등 대학가 근처,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이었습니다.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북구청 부근의 내국인 생활인구 수는 12시부터 19시 7시간 동안 총 99,415명이었으며, 중복집계 효과를 제외하여 시간당 평균을 계산했을 때, 14,20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 수는 동일 기준 총 6,742명으로, 시간당 평균 963명이었습니다. 생활인구 데이터 기준 15,165명이 행사에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며, 이 수치는 실제 부서에서 발표한 1만 5천명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1) 집계구: 기초단위구를 결합하여 만든 최소 통계 집계 구역으로 인구 규모, 사회경제적 동질성(주택 유형, 지가 등), 지리적 형상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로 설정

## 데이터 공감

실제 그 전 주 9월 14일(일요일)과 비교했을 때, 증감을 살펴보면, 9월 14일 성북구청 부근의 내국인 생활인구 수는 12시부터 19시 7시간 동안 총 85,914명 이었으며, 중복집계 효과를 제외하여 시간당 평균을 계산했을 때, 12,2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류 외국인 생활인구 수는 동일 기준 총 4,462명으로, 시간당 평균 637명이었습니다. 행사 전 주의 생활인구는 총 12,910명으로 행사 전, 후를 비교했을 때 생활인구는 2,255명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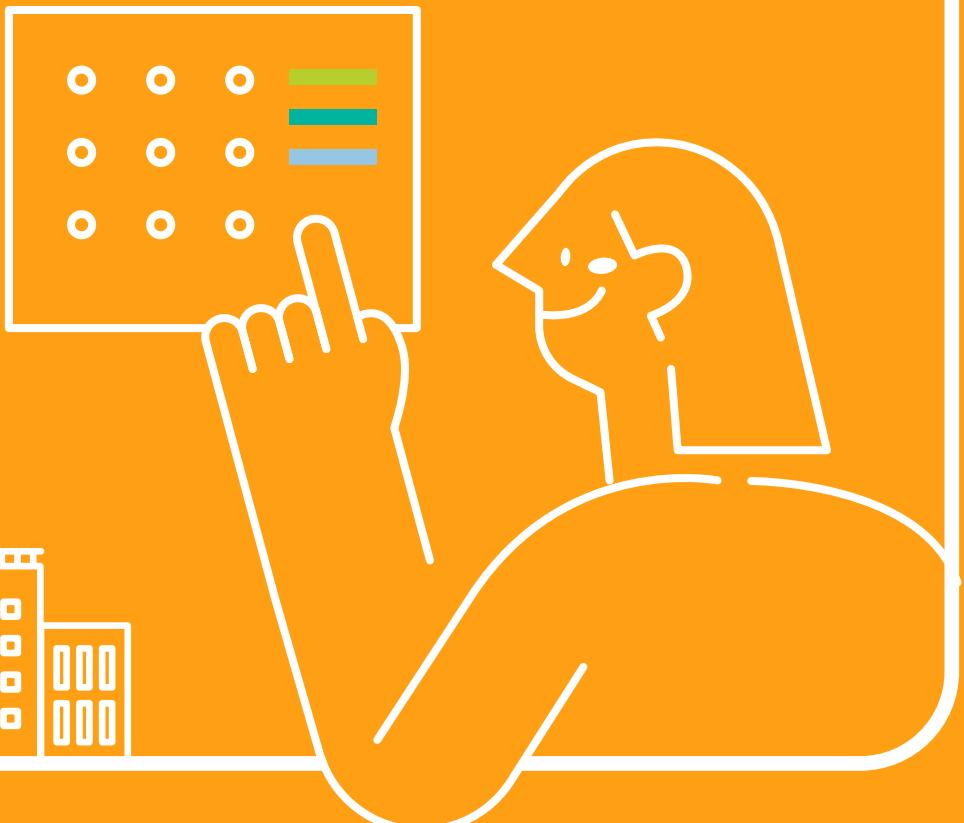
2014년 한국관광공사에서 16개 지자체 축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12% 정도의 유동인구 상승이 일어났는데, 성북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17.5% 상승하여, 축제의 효과가 유동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데 크게 유의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라틴아메리카 축제 외에도 12월에 열리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 26년 상반기에 세계적인 음식축제 누리마실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해 봅니다.



# 04

## 성북 생활정보



## 성북 생활정보

‘성북 생활정보’에서는 유익한 생활정보 및 구청 사업, 행사 정보 등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반려동물 축제**, 제4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25 인구주택총조사

- ✓ **조사기간** 2025년 10월 22일(수) ~ 11월 18일(화)
  - 인터넷 및 전화조사 : 2025년 10월 22일(수) ~ 10월 31일(화) (10일간)
  - 방문 및 면접조사 : 2025년 11월 1일(토) ~ 11월 18일(화) (18일간)
- ✓ **기준시점** 2025년 11월 1일 0시 현재
- ✓ **조사대상** 성북구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표본 20%)
- ✓ **조사항목** 총 55개(현장조사 42개 + 행정자료 등 대체 13개)
- ✓ **조사방법** 인터넷(PC, 모바일) · 전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태블릿PC) 실시
- ✓ **조사주관** 통계청
- ✓ **조사실시** 성북구



**당신의 답이 대한민국에 좋은 답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당신의 답을 들려주세요

조사대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 표본가구  
홈페이지 | [census.go.kr](http://census.go.kr)  
콜 센 터 | 080-2025-2025 (무료) \*오전8시 ~ 오후9시 (주말포함)



# 성북 생활정보



## 제4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 ✓ 일 시 2025년 10월 30일(목) ※ 개막식 : 14:00
- ✓ 장 소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성북구 보문로 168)
- ✓ 참여인원 내·외빈,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 등 약 800명

### ✓ 주요내용

시간	행사	주요내용
13:50 ~ 14:00	공연	사전 공연행사
14:00 ~ 14:30	개회식	내빈소개 및 퍼포먼스 등
14:30 ~ 15:40	1부	10개동 우수사례 발표
15:50 ~ 17:00	2부	10개동 우수사례 발표
17:00 ~ 17:40	공연 및 시상	공연행사 및 성과공유회 시상식

### ✓ 부대행사

행사명	시간	주요내용
주민자치 도전 골든벨	13:50 ~ 14:00	OX 단답형 문제 출제, 최후의 5인 선정
	18:00 ~ 18:10	우리은행 협찬 홍보물품 제공
먹거리존 운영	11:30 ~ 17:00	한천마을(식혜, 부침개), 정든마을(소떡소떡, 어묵), 삼덕마을(와플, 과일청)



# 성북 생활정보



## 제3회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 ✓ 일 시 2025. 11. 5~11. 26.(총 4회) / 매주 수요일 19:00~21:00
- ✓ 장 소 성북구청(성북구 보문로 168) 4층 성북아트홀
- ✓ 대 상 성북구 도시에 관심을 갖는 주민 누구나
- ✓ 신청방법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774) 또는 QR 스캔
- ✓ 수 강 료 무료
- ✓ 강의내용

일시	강의주제	강사
11월 5일(수)	스마트하게 우리 도시 고치기	이건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1월 12일(수)	한국 도시의 미래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작가)
11월 19일(수)	도시의 미래와 AI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1월 26일(수)	성북구의 혁신 도시의 미래를 바꾸다	김인희 (강남구 총괄계획가)



## 주민과 함께하는 제3회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도시전문가 4인이 말하는 도시의 미래

- 대상 성북구 도시에 관심을 갖는 주민 누구나  
 장소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일시 2025년 11월 5일, 12일, 19일, 26일(총 4회) / 매주 수요일 19시~21시  
 신청방법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774) 또는 QR코드 스캔  
 수강료 무료



신청 바로가기



### |교육일정|

1 이 건 원 교수 스마트하게 우리 도시 고치기 11월 5일(수) 19:00~21:00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단소중립시대의 환경정책』,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저자 <어쩌다 이론> 등 방송 출연	2 김 시 덕 도시문헌학자 한국 도시의 미래 11월 12일(수) 19:00~21:00 도시문헌학자, 작가 『한국 도시의 미래』,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 담사기』 저자 <어쩌다 이론> 등 방송 출연	3 이 희 정 교수 도시의 미래와 AI 11월 19일(수) 19:00~21:0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의 미래와 AI』, 『맞춤형 도시계획』 저자 『미래도시 : 신 도시계획 및 설계』 저자	4 김 인 희 박사 성북구의 혁신 도시의 미래를 바꾸다 11월 26일(수) 19:00~21:00 강남구 총괄계획가 『사람 중심의 도시 (2050 서울의 미래공간)』 저자
--	---	---	--